

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나무도 생리 불안 상태

- 개나리·미선나무 등 47수종 꽃피는 시기 조사·분석 -

- ◆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조성된 홍릉수목원에서 개나리, 미선나무 등 47수종에 대해 36년전('66년)과 최근 4년간 ('99~'02년) 봄의 꽃피는 시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, 대부분의 수종들이 과거보다 빠르게 꽃을 피운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.
- ◆ 최근 40년간 서울을 기준으로 한 온도 변화를 보면 나무가 꽃피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1~3월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며, 특히 3월의 온도는 '60년대 초에 비해 2~3℃ 정도 높아진 경향을 보여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- ◆ 시기별로 꽃핀 나무 수를 '66년과 최근 4년간 비교한 결과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, 지난 '66년과 평균기온이 비슷한 '01년도의 개화시기를 보면 온도가 비슷함에도 같은 시기에 꽃피는 종수는 더 많아지고 있으며, 이는 지난 40년간 완만한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수목이 빠르게 적응한 결과라고 보여진다.
- ◆ 또한, '96부터 '02년까지 매년 5.10일 계방산에서 신갈나무의 잎이 피는 상태를 조사한 결과 온도가 높을수록 나무 잎도 일찍 피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◆ 산림청 임업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같이 최근의 이상 기온현상은 나무가 자라는 기간을 길게하고, 늦가을에 철쭉꽃이 피는 등 나무의 생리를 불안정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이상기온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.